



I. 현 황

1. 국내 大陸棚 석유개발

(1) 개발역사

에가페(現 ESCAP) 산하 아시아지역 淺海底 鑛物資源 共同探查 調整委員會(CCOP)의 알선으로 美海洋研究所와 韓國 地質調査所(現 動力資源研究所)가 공동으로

石油개발 계획과 정책방향

曹 基 鳳
 <동력자원부 유전개발과장>

지난 1968년도에 西海 및 東支那海를 대상으로 해상 물리탐사를 실시한 것이 우리나라 대륙붕 탐사의 효시가 된다. 물리탐사 결과 국내 大陸棚 구역내에 두꺼운 第3紀 堆積層의 분포가 확인되어 우리나라 대륙붕에도 石油資源 부존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海底鑛物資源 開發法을 1970. 1. 1자로 제정, 공포하여 大陸棚 石油開發 체제를 확립하였다.

우리 연안 대륙붕에 7개 石油광구를 설정하고 租鑛制度가 마련됨으로써 외국 石油開發 會社들이 대륙붕 石油探查에 참여케 되었으며, 당시 자본과 기술경험이 전혀 없는 우리의 여건으로 외국 石油開發 會社들에 의한 石油탐사는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表 - 1> 초기 租鑛權 설정내역

鑛 區	租鑛權者	探查開始	租鑛反納	비 고
2·4	걸 프	69. 9. 1	77. 4. 14	未設定
1·5	텍 사 코	70. 7. 5	80. 9. 22	5鑛區現租鑛權者 (HADSON, 油開公)
3·6	셀	70. 5. 16	76. 12. 25	未設定
7	코 암	71. 9. 14	-	

이에 따라 조광권을 취득한 외국 租鑛會社인 걸프, 텍사코, 셀, 코암社들은 탐사작업에 착수케 되었다.

물리탐사에서 얻어진 유망구조에 대한 最初の 探查시추는 제 6 광구에서 72. 11. 13字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14個孔의 탐사시추를 실시하였으나, 石油발견에는 성공치 못하였다.

국내 대륙봉에 7개의 石油광구를 공포함에 따라 日本側은 제 5 광구의 남부일부와 제 7 광구가 日本의 영역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광구경계 분쟁이 발생케됨으로서 1970년부터 이 구역에 대한 양국간의 협상끝에 1978. 6. 22일자로 양국간에 대륙봉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하고 이 지역을 9개 小區域으로 분할, 양국이 5대 5으로 공동 개발케 되었다.

韓國側은 기존의 조광권자가 계속 조광권자가 되고, 日本側은 日本石油와 帝國石油가 조광권자가 되어 공동 개발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7개공의 탐사시추를 실시하였다.

〈表 - 2〉 韓 · 日 공동구역 조광설정 현황

小 區	조 광 권 자		탐사개시	비 고
	韓 國	日 本		
5	油開公	日本石油	79. 10. 29	1985. 5. 17 텍사코 철수
7 · 8	코 암	日本石油(7) 帝國石油(8)	79. 10. 30	
1 · 9	코 암	—		日本側租鑽미설정

80년대에 들어서서 우리의 경제여건도 향상되고 또한 상당한 기술축적이 이루어짐으로써 외국 조광회사들이 성공치 못하고 철수한 단독광구에 대하여 자주적 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油開公과 動資研으로 하여금 既 탐사자료의 재분석을 시작하였고,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83년도 부터 油開公으로 하여금 未探查 지역에 對한 물리탐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表 - 3〉 자주적 물리탐사 실시실적

	1983	1984	1985	1986		1987 (계획)
鑽 區 名	6	5	4	2	4	3
物理探查 (L-km)	2,838	3,352	2,142	3,086	168	2,000

86년도에는 韓 · 日共同 개발구역 제 5 소구에서 韓國側 조광권자인 텍사코社가 철수케 됨으로써 油開公과 경인 에너지가 제 5 소구역에 조광권자로 참여하여 日本側과 1개공의 탐사시추를 실시한 것이 우리나라가 탐사시추에 자본과 기술참여한 최초의 예이다.

83년도부터 물리탐사를 油開公이 자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수개의 새로운 유망구조를 확인하였고, 1986년 4월에 외국 石油開發會社인 美HADSON社를 유치케 됨으로써 단독광구의 조광설정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현재는 제 5 광구에서 美 HADSON社와 油開公의 5대 5으로 공동으로 개발중에 있다.

〈表 - 4〉 現 租鑽權 설정내역

광 구	조 광 권 자	조 광 기 간
5	HADSON 油 開 公	86. 4 ~ 92. 4
韓 · 日공동구역 (1.7.9小區)	코 암	79. 5 ~ 87. 5

(2) 탐사의 종합평가

국내 대륙봉에서 현재까지 물리탐사 약 63,000km, 탐사시추 14개공을 실시하였으나, 石油를 발견치 못하였다. 현재까지의 탐사는 우리 대륙봉의 총면적 297,784 km²에서 일부만이 탐사가 실시되었으며, 또한 탐사를 실시한 지역도 주로 외국 조광회사들에 의하여 추진되었고, 現 탐사물량으로 완전한 지질구조 파악이나 충분한 자료 취득은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국내 대륙봉의 石油 부존 여부를 現 시점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까지의 탐사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외국 조광회사

〈表 - 5〉 대륙봉 탐사실적

구 분		물리탐사 (km)	시추탐사 (孔)
單獨區域	外國租鑽權者	41,453	7
	油 開 公	11,586	—
	小 計	53,039	7
韓 · 日공동구역		9,984	7
計		63,023	14

들에 의하여 탐사추진 됨으로써 외국 石油開發 會社들은 탐사의무량만의 실시로 극히 소극적 탐사가 추진되었으며, 탐사한 지역에 대하여 충분한 탐사자료 획득이 곤란하였고, 또한 취득된 자료도 충분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石油를 찾기 위하여는 퇴적분지의 존재여부가 조사되어야 하며 퇴적분지내에 石油가 생성될 수 있는 유기질형질이 다량함유된 퇴적층의 유무와 石油가 담겨져 있을 퇴적구조의 발달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물리탐사를 실시하여 확인하게 되는데 국내 대륙붕에서 현재까지 물리탐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퇴적분지의 분포도 일부만이 파악된 실정이다. 현재까지 대륙붕 면적의 약 65%인 193,000km² 지역만이 물리탐사가 실시되어 퇴적분지 분포면적이 쉰 대륙붕 면적의 약 40%인 약 120,000km²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확인된 퇴적분지도 부분적으로 밖에 정밀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또한 확인된 퇴적분지도 石油가 담겨질 가능성이 있는 집적구조 조사를 위하여는 물리탐사 축선간격을 2km 이내로 좁게 실시하는 정밀 물리탐사를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약 36,000km²를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도 약 50% 밖에 실시치 못하였다.

〈表 - 6〉 확인된 堆積盆地

區 分	大陸棚면적 (A)	堆積盆地 면적 (B)	B / A (%)
單 獨 區 域	215,126	55,572	26%
韓國 · 日本 共同 區域	82,658	63,977	77%
計	297,784	119,549	40%

〈表 - 7〉 精密 物理探査 실적

對 象 面 積 (A)	既實施面적	未實施지역 (B)	B / A (%)
36,285	17,785	18,000	49.6%

현재까지 외국 조광권자가 실시한 정밀물리탐사에 의하여 확인된 石油賦存 가능 집적구조 83개중에서도 탐사

시추로 石油 부존여부를 확인한 구조가 17%인 14個 구조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石油생산 퇴적층인 유기질이 함유하는 퇴적층의 분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表 - 8〉 石油賦存가능 집적구조현황

구 分	集積構造				既探査시추 完 료 구조
	A	B	C	計	
單 獨 区 域	18	26	16	60	7
韓 · 日 共同 區域	8	8	7	23	7
計	26	34	23	83	14

註：A-시추대상구조

B-추가 物理探査후 시추대상구조

C-소규모 또는 상당한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구조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대륙붕의 현재까지의 탐사는 극히 부분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현재까지의 탐사결과 우리 대륙붕에는 石油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대륙붕의 石油개발 역사가 20년도 채 못되지만, 현재까지 국내의 油田개발을 통하여 축적한 우리의 石油開發 기술을 적극 응용하여 언젠가는 대륙붕에서 石油를 찾아내야 할줄 믿는다.

(3) 大陸棚 개발의 필요성

국내 대륙붕에 石油가 부존할 가능성이 있어야 대륙붕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탐사에서 반드시 石油가 있다고 할 지질학적 근거를 제시할 자료는 없지만, 반면 전혀 石油가 부존할 수 없다는 지질학적 근거도 제시할 수 없다.

이러한 실정에서 대륙붕에서 石油탐사를 지속할 필요성은 다만 다음의 지질학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질학적 측면으로 볼 때, 현재까지 탐사된 탐사시추 공중 몇개공에서 석유 및 가스徵을 발견할 수 있었던 점과 특히 第6 광구 돌고래孔에서는 상당량의 가스 Show가 나타났으며, 또한 시추추심(Core)의 지화학분석 결과도 다량의 유기질 물질이 함유하는 퇴적층의 발달이 확인됨으로써 충분한 石油생성의 여건도 갖추어져 있다

는 점이다.

그리고 지질구조의 퇴적환경이 隣接國인 中共에서 石油 발견 내지는 생산되고 있는 Bohai 및 Subei 분지와 유사한 분지가 국내 대륙붕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日本側은 대마도 南海底(第6-2 鑛區 南側)에 경제성은 없으나, 石油부존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石油 징후를 확인하였으나, 貯留構造內에 단층발달로 생성된 石油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는 자료가 수집된 바 있으며, 또한 石油생성 根源岩의 발달을 확인한 것은 우리 대륙붕에도 긍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韓·日 공동구역 서측경계에서 약 60km 떨어진 中共 구역에서 中共側이 탐사시추를 4개공 실시하여 2개공에서 경제성이 있는 가스를 발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中共側에서 시추한 퇴적분지는 우리 韓·日 공동구역으로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中共의 가스 발견은 우리 대륙붕에 상당한 희망을 주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石油 수요의 총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에너지 자급의 향상과 에너지 안정공급원의 확보 노력이 불가피하며, 石油開發 기술의 축적과 국내 대륙붕의 石油 부존여부가 규명될 때까지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국내 대륙붕 탐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隣接國과의 대등한 石油開發 기술능력 배양으로 石油 발견에 對應하는 물론 광구역계 紛爭의 소지가 있는 西海(中共側)와 東海(日本側) 지역에서 기득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인접국에서 石油 생산시 국경을 넘어오는 汚染防止 對策의 일환으로도 石油개발 기술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21세기에는 해양개발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므로 이를 대비 3面으로 해양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石油開發 기술축적으로 해양개발의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石油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조선, 철강, 파이프라인산업 등 石油開發 산업보급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물리탐사의 전산처리 해석기술 향상으로 他 산업 발전 도모에 기여할 수 있다.

石油資源 개발은 오늘날에 고도로 발달된 기술능력으로도 정확히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세계 石油開發史에서 보여주듯이 조급한 판단은 절대로 금물임을 알 수

있다.

英國의 대표적인 과학자가 北海지역에서 石油부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쓴 책이 발견된지 1년도 못되어 北海에서 33번째의 탐사시추에서 石油를 겨우 발견케 되어 오늘날에 350万B/D까지 생산하는 產油海域으로 된 사례와 1930년에 소칼 石油會社가 다른 메이저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石油 부존 가능성을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탐사를 추진하여 대규모 油田을 발견함으로써 오늘날 세계 최대의 石油 부존국이 된 사례, 그리고 1950년 대말까지도 아프리카 대륙에 石油 부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나, 오늘날 전 세계 생산량의 8~9%의 石油를 아프리카 대륙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례와 美國 聯邦 審議會가 보잘것 없다고 평가한 서부 시베리아에서 2년후에 石油 및 가스田을 발견한 사례 등으로 보아도 우리 대륙붕을 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2. 해외 油田開發

(1) 國際趨勢 변화 및 동향

근대 石油開發史는 1859년 美國인 에드워드 드레이크가 美國 펜실바니아州에서 掘鑿式 採油방법을 성공시킴으로써 시작되었다.

1910년대까지의 종합 石油會社들의 형성시대에는 美國과 소련에서 주로 石油開發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소련에는 주로 西유럽 제국들이 石油개발에 참여하였다.

본격적인 해외 油田 개발은 1910~1930년 사이의 개척 시대에 선진국들이 자국의 식민지에서 石油개발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으나, 특히 中東을 둘러싼 利權 쟁취 시대인 1930~1945년 사이에 선진국들이 海外에서 적극적인 탐사를 실시하여 오늘날의 해외 油田개발이 本格化되었다. 개척기와 中東을 둘러싼 이런 쟁취시대의 해외 油田 개발은 선진국들이 일방적인 租鑿契約 형태로 약소국(產油國)의 자원 收奪이 이루어져 선진국들이 富의 축적을 가져오게 되었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資源 民族主義의 대두로 오늘날의 해외 油田 개발형태가 시작되어 산유국들은 자원의 보호에 나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의 해외 유전개발은 산유국과 개발권자 간에 협력관계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배 계약 형태가

〈表 - 9〉 해외油田개발 진출내역

進出國	鑛區	진출회사	共同開發外國會社	참여지분	사업허가일자
인도네시아	西마두라	코데코, 油開公	印尼 페르타미나	50%	1981. 5. 15
美國	陸上	大新石油	美 Lar-Mie社	75%	1984. 2. 17
北에멘	마리브	油公, 三換, 現代油開公	美 Hunt, Exxon	24.5%	1984. 3. 28
인도네시아	아당	력키금성, 油開公	美 Mobile외2個社	15%	1984. 4. 27
인도네시아	나우카	京仁, 大宇, 油開公	美 CONOCO社外5個社	15%	1985. 9. 20
수단	나일 및 동골라	油公	美 Sun社外 2個社	14.5%	1985. 12. 14

이루어졌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產油國들 위주의開發契約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해외油田개발은 수익성 보다는 石油의 安定 확보와 산유국과의 협력관계 측면에서 非產油國과 개도국들은 해외유전 개발을 추진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2) 進出歷史 및 탐사실적

우리 나라의 해외油田 개발은 코데코 에너지가 인도네시아 西마두라 광구에 인도네시아 페르타미나와 공동으로 개발기 위하여 1981. 5. 7 페르타미나와 생산분배계약을 체결하고, 탐사를 실시한 것이 해외油田 개발의 효시이다.

인도네시아 西마두라에서 油田과 가스田을 발견하여 油田은 1985. 9月 생산이 개시되었으나, 코데코側의 기술능력 부족으로 계획된 생산을 이루지 못하였고, 현재는 가스田을 개발하기 위하여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西마두라油田 개발 사업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은 해외油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되었고, 현재까지 6 개의 해외油田 개발사업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중 北에멘 마리브油田에 진출한 事業은 현재 Alif 油田이 평가가 완료되어 생산시설중에 있으며, 北에멘의 요청으로 同 油田에서 1986. 4月부터 부분생산을 개시하여 현지에 건설된 1万B/D 규모의 정유공장에서 정제하여 北에멘의 내수용으로 전량 공급하고 있다.

本 北에멘 마리브油田은 88년초부터 본격생산이 개시

되어 초기 100,000B/D로 생산될 예정이며, 또한 本 광구에서 3 개의 다른 油田도 평가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으므로 우리나라 해외유전 개발의 성공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II. 政策方向

1. 方 向

- 石油의 安定공급, 에너지 자립도 향상:

현재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石油의 安定 공급 및 자립도 향상은 국내의 유전개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룩할 수 있으리라 본다.

- 국내 대륙붕은 정부 주도하에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탐사의 추진으로 石油 부존여부 및 石油발견 기금조성:

국내 대륙붕에서 현재까지 石油을 발견치 못하였으나, 우리나라도 경제 여건이 많이 향상되었고, 상당한 기술축적이 된 현시점에서 자주적으로 국내 대륙붕을 탐사함으로써 石油부존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石油 발견의 기초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해외유전 개발은 민간주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石油산업의 上流部門과 下流部門의 균형적 발전도모:

국제 경쟁시대에 우리나라 민간기업도 선진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하여는 해외油田 개발에 적극 진출하여야 하며, 또한 현재 우리나라 石油 산업은 下流部門만이 발전되어 있어 上流部門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

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 石油開發 기술축적 및 해양개발 기반 구축 :

국내의 油田개발을 통한 石油개발 기술의 축적으로 他 산업에의 활용과 동시에 장래의 해양개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石油開發 補給産業 발전 도모

石油개발에 필요한 機資材의 供給源인 조선, 철강, 파이프산업등 관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산유국과의 협력 증진 :

해외의 石油開發에 진출함으로써 산유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도모할 수 있다.

2. 목 표

- 2000년대에 자주개발 공급을 20% 달성 :

국내의 油田개발 중 탐사광구에서 자주개발 공급률을 10%, 해외 기개발광구 확보로 자주개발 공급률을 10%, 總 20%를 2000년대에 달성함으로써 石油의 안정공급원을 확보코자 한다.

- 국내 大陸棚에 石油발전 내지 石油賦存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지질구조의 완전 규명

정부는 油開公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기초탐사(물리탐사 및 기초시추)를 실시하여 石油발전은 물론 대륙붕의 지질구조를 완전 규명하고, 또한 국내의 石油개발 會社들의 국내 대륙붕 개발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기초탐사 자료를 根據로 외국 石油開發 회사들을 적극 유치하여 油開公과 50대 50으로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 海外油田 개발의 위험부담 극소화 :

油田개발은 위험부담이 큰 事業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극소화하기 위하여는 국내 참여 기업간에 콘소시움을 형성하여 진출하고, 외국 石油開發 회사와 공동개발로 적극 추진토록 유도 할 것이다.

또한 탐사광구에 진출함은 물론 앞으로 자본 투자는 많지만, 위험부담이 적은 기개발 유전에서의 참여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정부 지원제도의 정착 :

탐사단계의 成功拂 융자제도를 완전 정착시키고, 점진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에서의 개발단계에서의 융자 지원제도를 講究하여야 하며, 조세지원 제도도 점진적으로 개

선되어야 할 것이다.

- 石油開發 기술향상 대책 확립 :

油開公은 개발기술 분야, 動資研은 탐사기술 분야를 분담하여 기술축적 및 기술개발을 도모하고, 민간기업의 석유개발기술 향상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민간기업의 石油開發 기술자 훈련사업 및 강학회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Ⅲ. 국내大陸棚 장기개발 계획 개요

국내 대륙붕은 현재까지는 외국 石油開發會社에 의하여 탐사가 추진되어 왔으며, 아직까지 石油부존 여부를 판단할 충분한 자료 수집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대륙붕의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를 위하여 대륙붕의 石油부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질구조의 완전규명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基礎物理探査 계획(1987~1990)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국내 대륙붕내의 퇴적분지 분포상황을 완전규명하고 퇴적분지내에 石油賦存 가능 집적구조도 확인하고자 한다.

앞으로 개략물리탐사 약 8,000km와 정밀물리탐사 약 12,000 L-km를 실시함으로써 이상의 소기 목적은 달성되리라 본다.

또한 기초시추 계획(1987~1995)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地層 및 구조개발 상황을 완전 분석하고 石油生成 가능 根源岩의 존재여부 및 成熟課程 등을 파악하고, 石油부존 집적구조의 특성을 발견함으로써 石油를 찾아내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매년 1個孔의 기초시추를 함으로써 가능하리라 본다.

정부차원에서는 이상의 기초탐사의 추진과 병행하여 외국 石油會社를 적극 유치하여 油開公으로 하여금 공동 개발토록 할 계획이다.

국내 대륙붕이 아직까지 石油를 발견치 못함으로써 외국 石油開發會社의 개발을 위한 유치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초탐사를 실시하여 가능성 있는 탐사자료를 제공하여야 외국 석유개발회사를 쉽게 유치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외국 石油開發會社나 油開公의 공동개발로

'89년 부터는 매년 3개공 이상의 탐사시추를 실시하면 국내 대륙붕에서도 石油발견의 희망은 성취되리라 믿는다.

또한 국내 대륙붕에서 기초탐사를 실시하면서 油開公, 動資研 및 민간 石油開發회사로 하여금 연구과제를 선정 연구케 함으로써 기술축적 및 기술개발을 도모케 할 계획이다.

IV. '87石油開發 計劃

(1) 국내 대륙붕 개발

국내 대륙붕 장기개발계획 추진의 初年度인 금년은 油開公이 최초로 자주적으로 기초시추를 하게 됨으로 국내 대륙붕 개발의 전환기가 될 것으로 본다. 금년도 대륙붕 개발은 현재까지 물리탐사를 적게 실시한 第3광구에서 약 2,000km의 물리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第3 광구 맞은편 中共구역에서는 상당량의 탐사시추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第3 광구는 퇴적분지 발달이 미약한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금번 물리탐사로 퇴적분지 발달이 미약한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퇴적분지가 확인될 수 있는가의 연구대상 지역이다.

기초시추에는 1개공을 油開公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최초의 기초시추이기 때문에 가장 기대되는 石油부존 가능 집적구조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第4 광구와 第6 광구의 石油부존 가능 집적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油開公내에 油開公, 動資研, 민간 등이 참여하는 탐사반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기초탐사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기술축적 圖謀에 重點을 둘 계획이며, 우리의 試錐船인 斗星호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美HADSON社와 油開公의 공동개발구역인 第5 광구에서 美HADSON社 부담으로 약 3,000 L-km의 정밀물리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第5 광구의 정밀물리탐사는 주로 87년도에 탐사시추를 위한 퇴적구조의 정밀분석작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2) 해외油田開發

石油의 안정공급원 확보를 위하여 해외油田 개발을 적

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소요와 위험부담을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開發原油 공급목표 20%를 2000년대에 달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부터는 생산중이거나 평가가 완료되어 매장량이 확인되고 생산시설 단계에 있는 既開發 油田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87년중에 1~2개 既生産하고 있는 油田에 20% 범위내로 지분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既開發油田 확보에는 油開公이 정보입수가 용이하며 자금소요가 크기 때문에 油開公으로 하여금 여러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참여케 하고, 石油事業基金으로 소요자금에 대하여 일부 용자 지원할 계획이다.

탐사광구 진출은 민간으로 하여금 적극 진출토록 하되 成功率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진출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매년도 초에 현재까지의 진출 탐사광구의 성공률을 평가하고 성공률이 30%線 범위내로 유지되도록 진출대상 광구수와 투자규모를 확정 진출케 할 계획이다.

既進出한 탐사광구중 北에멘 마리브油田은 초기100,000B/D 규모의 생산시설과 마리브油田에서 수에즈沿岸까지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설치, 그리고 접안시설등을 금년말까지 완료하여 88년초 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고 새로 발견된 유전평가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西마두라 가스田 개발도 하루 40百万Ft³ 규모의 생산시설로 착수할 계획이다.

기타 인도네시아 아당광구와 수단의 나일鑛區도 계속 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